성실과 겸손을 실천하는 새로운 2등이 되자

KT 파워텔 대표이사 권행민 동문

KAIST 총동문회장에 임명된 권행민 동문(경영과학 석사 82)이 지난 2009년 6월 주파수 공용통신 기간통신 사업자인 KT 파워텔의 사장으로 취임했다. 전 KTF 대표이사이기도 했던 그는 KT그룹 전략CFT장, KT 재무실장, KT비전 경영실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KT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주도한 주인공. 그를 만나 최근 근황을 들어보았다.

천문학자를 꿈꾸던 CEO

한때 천문학자가 꿈이었다는 권행민 동문. 세월이 흐르면서 꿈이 변했지만, 지금도 별이나 행성에 관심이 많다는 그는 차분하고 온화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쭉 밀고 나가는 뚝심형의 전문경영인이다. 취임 6개월째의 KT 파워텔에 대해 그는 특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기업의 물류 분야 통신 시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통신 서비스 제공 회사로 거듭날 것이며, 회사의 대내외 역량을 향상시켜 대외 상황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넘버원 파트너'를 KT 파워텔의 비전으로 제시한 그는 지난 6개월간 어떤 가시적 성과를 거뒀는지 궁금했다.

"사실 그것은 전임 사장이 제시한 비전이며 저 또한 최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가시적인 성과로는 최근 회사의 재정이 흑자 기조로 변화되었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흑자 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직률의 경우 취임 전에는 높았지만 지금은 어느 사원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익 구조로 경쟁력을 높이다

KT 파워텔의 주요 사업 부문과 수익 구조는 한 마디로 '그룹 통화'라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휴대폰에서 여러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처럼 음성을 일제히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무전기 기능을 같이 보유해 일반 휴대폰처럼 일대일 통화도 가능해 그 효용도가 매우 높다. 예를 들면, 큰 공장의 프로젝트 관리자가 근로자들을 한 곳에 집결시키는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보통 택시 기사들이 콜센터를 통해 손님을 연결 받으면 콜센터에 건당, 혹은 월정액의 요금을 지불한다. 권행민 동문은 콜센터 기능을 대신해 KT 파워텔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전한다. 특종 업종에서 요구도가 높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통화권이 넓지 않은 것이 단점이었는데 최근 이를 극복한 듀올이라는 단말기를 출시했습니다. 이동 전화 칩이 들어 있어 KT 파워텔 서비스망 아닌 곳에서는 모드 전환이 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죠. 지휘명령 체계를 갖춰야 할 조직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앞으로 통제 시스템을 더욱 잘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는 KT 파워텔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목표로 고객층을 넓혀나가는 것을 꼽는다. 현재 듀올이 1차 모델만 나온 상태이지만, 곧 2차 모델도 출시할 예정. 이를 계기로 통화권 이탈 지역도 줄여나가고 있고, 통신이 통화권 내에 있음에도 누락되는 고객 불만도 해결할 것이라고 한다.

경험은 가장 크고 소중한 자산

권행민 동문은 KT 재직 시절에 재무실장, 경영실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경력을 쌓아왔다. 그렇다면 CEO의 입장에 있는 지금 예전 경력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을까. 그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한다.

"큰 조직을 경험해보았다는 것이 작은 조직에서 자신감을 부여해 줍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할까요? 가지가 무성한 나무를 맡았다가 단출하고 작은 나무로 옮기고 보니 더 잘 보이고 더 잘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면 요건을 갖추는 대로 증시에 상장할 예정인데, 이전 재무실장 경력이 이러한 목표를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권행민 동문에게 CEO를 꿈꾸는 후배들을 위한 한 마디를 부탁했다. 그는 고민 없이 '덕칠기삼(德七技三)'이라고 답했다. 덕을 많이 베푸는 것이 훗날 자신에게 큰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당장에는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큰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것.

"또 한 가지 전략 아닌 전략을 말하자면 2등이 되라는 것입니다. 2등은 상대적으로 1등보다 주목을 덜 받습니다. 그러므로 부담이나 압박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신 에너지와 실력을 더 쌓아 1등에게 쳐지는 2등이 아니라 1등과 대등하지만 한 발 양보하는 2등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실과 겸손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F

글 | 손지연 기자